부품·소재기업 CEO 모임 출범

부품·소재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투자기관 관계자 103명으로 구성된 부품·소재기업 CEO 서밋이 3월 2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CEO 서밋은 앞으로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건의를 하고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부품·소재산업 핵심기술의 대외의존에 따른 대일 무역적자 지속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핵기업 성장지원, 핵심소재 원천기술 확보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이태용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은 “2000-05년 핵심 부품·소재의 연구개발을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의 162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2232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액이 1조4211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정부의 부품·소재 지원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22>